

시론

12월은 용서하는 연말을 만들자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명사전문가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복(福)'이라는 단어를 통해 작은 위안을 삼는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구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후재앙, 전쟁, 전염병, 금융위기 상황들에 영향을 받는다. 올 한 해 하루도 조용한 정치적 상황도 없었고,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뉴스들로 우리 일상은 지배받아 왔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의 문화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모임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 웃음도 줄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반갑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문화도 사라졌다.

요즘 공원을 산책 하다 보면 옆에 여덟은 반려동물과 만나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고, 어찌나 만나는 아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저녁에 길을 걷다 보면 인대가 붙어 있는 가게들이 이제 간판 개수보다 많아진다. 시골은 해가 지면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국밥 한 그릇 먹기도 어렵다. 예전처럼 대규모 강연은 거의 사라졌다. 소규모의 강의만 의뢰가 들어 오고 한편으로는 그냥 마음을 비

우고 감의를 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쓴들 넘쳐나는 뉴스거리가 오히려 행복감을 무력감으로 바꾸는 일상이다. 그나마 가끔 들려오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 같은 좋은 소식을 빌미로 뉴스를 찾는다.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를 매우 미워하며 1년을 지낸 것 같다.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위기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피습과 테러를 당하는 상황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 12월에는 '용서' 하는 달로 정하고 올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들을 잘 정리하고, 그 용서를 통해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보내드렸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되어서인지 헤어짐에 익숙한 나이가 돼 간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평생 필자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당신이 평소 그토록 바랬던 것처럼 누우신지 3월 만에 하늘로 가신 일은 가장 큰 슬픔이었다. 사랑하는 선·후배들, 가까운 지인들과의 영원한 이별로 인해 한 해 동안 정신없이 힘들었다. 그래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웃음을 배달하는 일이라서 무대 위에서 꿩과리를 치며 웃어야 했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웃음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교육자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했다.

혹시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바로 용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상흔으로 자리 잡는 건 아직도 내 마음이 덜 닦인 거울인 것 같다. 이해인 수녀님의 기도집을 읽으며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는 구원이라고, 용서하지 않기에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셨던 진정한 잘못이라도 하루 해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12월을 보내며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서로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 보면 좋겠다.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 사랑법이라고 한다. 자신을 위해 용서하지.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사람까지 미워지는 법이다. 그래도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겠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사이로 봉어빵 한 봉지 사가는 아버지의 모습, 딸아이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어머니의 모습, 시린 손 호호 불며 코흘리개 장난꾸러기 동생을 안아주는 형아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우리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아무리 따뜻한 난로가 있다고 한들 사람 마음처럼 따뜻함이 있으랴. 제아무리 비싼 옷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가치 있는 12월이 되기를 빌어본다. 차매예방 강연과 아이돌봄봉사자들 웃음 힐링 강의를 하면서 느꼈다. 그분들의 웃음이 곧 미래 우리들의 웃음이 된다.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내 가슴속 차가운 마음을 '용서'라는 손난로로 녹여가는 12월의 남은 시간이 되길 빌어본다.

社說

장 담그기 유네스코 등재로 관심 끄는 전남 장류문화

한국의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전남지역 장류가 조명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장인 동국장을 재현한 해남에 관심이 쏠린다. 동국장은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지 않고 숙성해 먹는 고유의 장이다. 발효균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장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 만찬 소스로 쓰인 적도 있다.

또한 대우사의 두부장을 전수받아 상품화하는 등 대중화에 전격하고 있다. 두부장 만드는 방법은 특허로 등록돼 있다. 관내 7개 업체에서도 전통장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유네스코 지정용 계기로 여행 스토리 책자 발간과 함께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등 차별화된 장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체험상품도 운영한다.

한국 음식문화로는 2013년 '김장'에 이어 두 번째인 '장 담그기'는 콩을 주재료로 메주를 빻은 뒤, 이를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 등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콩 재배부터 메주 쪄기,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을 거

치는 제조법은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된다. 유네스코는 밥·김치와 함께 식단의 핵심인 장을 정성과 기다림으로 담는 기술과 지혜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전승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장은 건강을 중시하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에 부합하는 발효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 '후백요리사'에서 피 팔리는 요리 경연의 주요 소재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다뤄져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등재로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대두 생산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콩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부터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한국의 식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전남 중심의 장류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더 세심히 기울여야 하겠다.

사고 취약한 쓰레기 수거차 안전장치 소홀해선 안돼

쓰레기 수거차 사고가 잇따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10월에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또 11월에는 남구에서 차가 전도돼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안전장치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정당은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에 쓰레기 수거차 13대 구입비 8억3천만원이 편성됐다. 이들 신규 차량의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차량에는 사고예방 시설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5개구 수거차에 설치된 차량용 300도 어라운드뷰 현상은 188대로 69%였다. 자치구별론 광산구 92% (67대), 서구 88% (43대), 북구 83% (49대), 동구 67% (26대), 남구 0% (0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 의원은 안전장치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적절한 조치를 당부했다.

쓰레기 수거차는 도심 환경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구조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주 주택가 비좁은 지역을 수시로 운행해야 하고 차량도 무겁고 큰 편이다. 보행자, 작업자가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인명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차량은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문제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 경고 감지기, 긴급제동 등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에 힘써야 안전 안 되는 것이다.

안전한 수거 업무를 위해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 등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우선해서 어라운드뷰부터 모두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 어떤 사고라도 예고가 없다면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현장칼럼

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의 중요성



박희석 광주서구가족센터 상담수퍼바이저 소장

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서비스는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불화 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족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상황을 면접, 전화, 사이버, 집단상담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개인 및 가족의 역량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가족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을 설명할 때 가장 손쉽게 설명하는 것이 움직이는 모바일(mobile)이다. 부모라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자녀들이 매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모바일에서 중심축의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부모 역시 그 위에 각자 원가족의 부모, 형제들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족은 세대를 통해 모바일의 형태로 복잡하게 연결 및 얽혀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결은 3대로 보고 있다.

가족이란 '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며, 공동의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집단'을 말한다. 전통적인 상담에서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개인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족상담에서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과 상황적 맥락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상담의 관점에서 개인

의 어려움은 그 사람의 가족 내에서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이해하고 있다. 전문상담사인 필자는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의 범위를 넘어 가족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족 간의 소통을 원만하게 이끌 때 개인의 변화가 수월하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경험해 왔다. 필자는 과거에 모 방송매체를 통해 '달라졌어요' 시리즈를 진행한 바 있다. 부모, 부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각자 원가족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주제로 상담을 하였다.

부모가 달라질 때 자녀의 변화가 수월했고, 부부 각자가 원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할 때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가족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심하고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스스로 원가족을 통해 얻은 상처가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일이다.

정신분석가 S. 프로이트는 "우리들이 겪는 무의식적 충격은 기억되기보다 재현되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즉,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고통의 굴레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 속성이 있다는 의미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결혼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아버지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되어있다는 말이 이런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의 반복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패턴화된 행동에는 가족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구성원이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때 현재 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을 통해 형성된 마음의 상처가 되물림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여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다.

가족상담은 가족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 가족성원의 문제를 다룰 때 가족의 보이지 않은 역동을 이해하고 가족 전체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유연하게 해 근원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서구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전국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가족상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평가받고 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가까이 있다. 용기 있게 두드려 보길 바란다.

독자투고

마약운전,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치명적 범죄

최근 마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마약운전'이 급증하며 교통사고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운전은 뇌와 신경계를 자극해 착각과 환각을 유발하며, 속도와 거리감각 왜곡으로 대형사고를 초래한다.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뇌와 신경계를 자극하는 마약으로 인해, 착각과 환각을 유발하고 운전 중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속도와 거리감각을 왜곡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응속도와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 시킴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이다. 마약운전은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찰도 지난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하며 마약운전 범죄에 대해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마약운전의 예방책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

과 빈틈 없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위험성과 마약운전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임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마약운전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이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마약운전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개개인 모두가 경각심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용기·여수경찰서 경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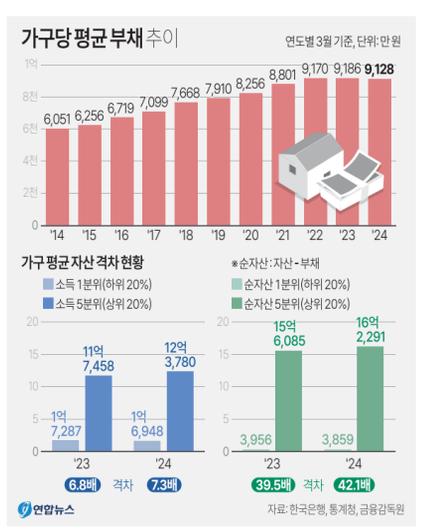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1인 가구 증가에 가구당 부채 첫 감소...평균 9천128만원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준 반면, 자산은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감소한 것은 처음으로,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나 고령 가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천296만원(2.5%) 증가한 5억4천2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4천 8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금융자산은 1억3천378만원으로 6.3%, 실물자산은 4억644만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4.4%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24.8%, 실물자산이 75.2%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구성비가 전년 대비 0.9%포인트(p) 확대됐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시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규토록 월 15,000원 1부 800원